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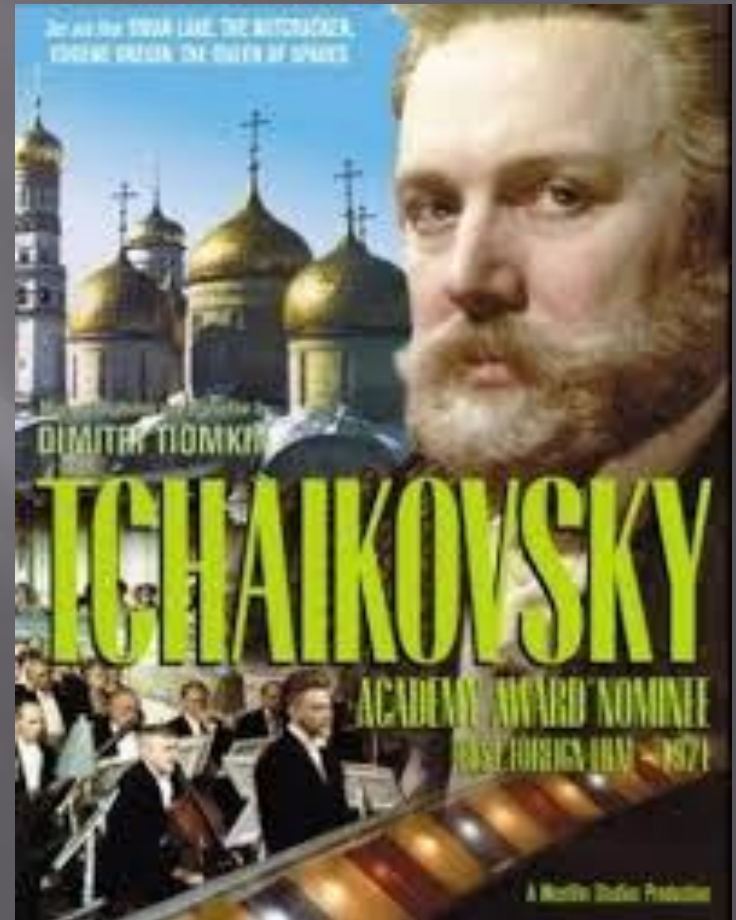
<차이코프스키> (1969)

이고르 탈란킨 감독

이노켄티 스모크투노프스키

안토니나 슈라노바 주연

차이코프스키와 후원자
폰 메크 부인의 사랑과 결별,
음악의 탄생을 그린 소련 영화.



영어자막

차이코프스키(1840~1893)



19살 무렵의 차이코프스키.
상트페테르부르크 법률학교를
마치고 법무부에 취직.

“몸이 유리로 된 아이”

→ 친절하고 관대했지만 극도로
섬세하고 예민했다.

“모차르트를 예수처럼 숭배”

→ 23세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
→ 바흐, 헨델, 베토벤, 브람스에
대한 겁없는 험담.

→ 늘 자기 음악이 **형편없다는
자의식에 시달림.**

그는 동성애자였다!



50살 무렵의 차이코프스키.
마지막 3년 동안 급속히
노화가 진행됐다.

마지막 작품인 <비창> 교향곡
조카 다비도프에게 헌정 →
→ 다비도프는 곤혹스러워 했다.

그의 사인은? 콜레라 아니라
법대 동창들이 명예재판 열어
음독 자살 강요했기 때문!
→ 동성애는 그의 비극적 삶을
처음부터 끝까지 규정

결혼은 미친 짓이었다!



안토니나 밀류코바 (1848~1917)

“다른 남자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”

“당신의 키스를 저승까지...”

“결혼 안해 주면 자살하겠다.”

→ 1877년 결혼

**이제 자살하고 싶어진 사람은
바로 차이코프스키!**

밀류코바는 모스크바 음악원 제자.
동성애자인 차이코프스키에게
결혼은 재앙이었다.

실제로 자살 기도



안토니나 밀류코바 (1848~1917)

모스크바의 강에 뛰어들어
자살 기도, 감기 걸려 돌아옴.

“하루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.
방법은 하나, 내가 사라지는 것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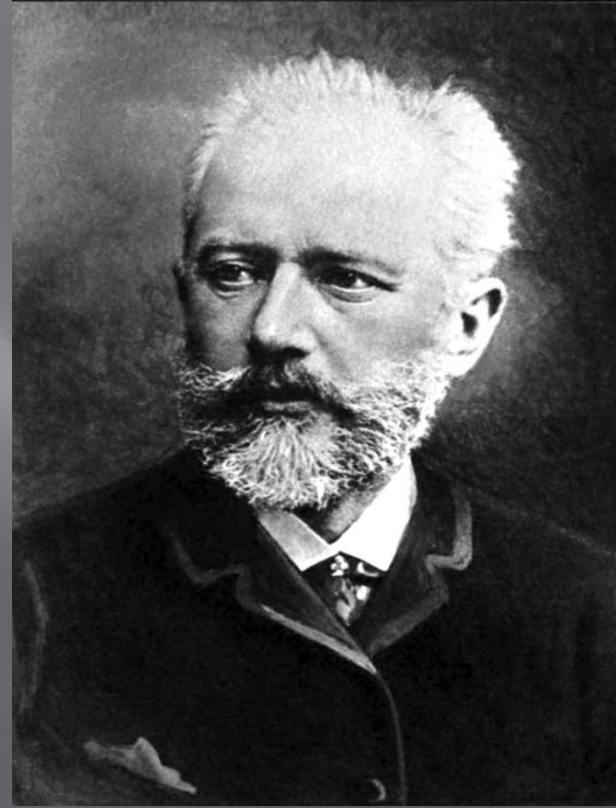
밀류코바가 이혼 거절,
이혼도 못한 채 스위스로 도망

차이콥스키는 “밀류코바가
파충류 같다, 결혼 생활이 끔찍
하다”고 했다. 그의 정신 세계는
피폐해졌다.

음악사상 가장 특이한 후원자, 폰 메크 부인



폰 메크 남작부인 (1831~1894)



차이코프스키 (1840~1893)

**“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. 조건은 하나,
절대 만나지 않는다!” (1876)**

음악사상 가장 특이한 후원자, 폰 메크 부인



폰 메크 남작부인 (1831~1894)

“당신에 대한 제 사랑은 운명,
제 의지는 저항하지 못합니다.”

“당신의 음악을 들을 때면
당신에게 완전히 굴복합니다.
당신은 제겐 신 같은 존재.”

실제로 두 번 마주쳤으나
그냥 지나쳤다고 함.

→ **해마다 거금 6천 루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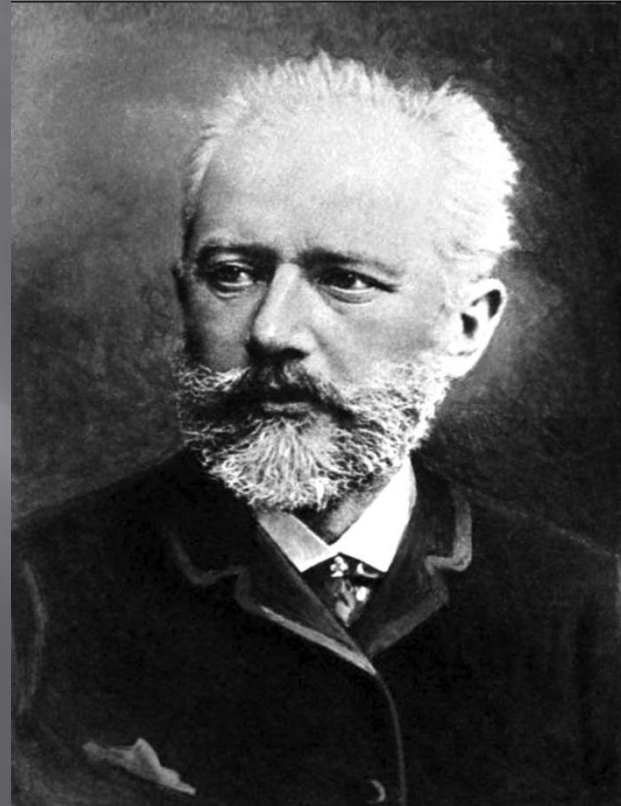
**“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. 조건은 하나,
절대 만나지 않는다!” (1876)**

음악사상 가장 특이한 후원자,
폰 메크 부인

“제 영혼이 힘닿는 데까지
당신을 사랑합니다. 당신을
제 인생으로 불러온 운명을
매 순간 축복하고 있어요.”

교향곡 4번

“우리들의 교향곡”



차이코프스키 (1840~1893)

“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. 조건은 하나,
절대 만나지 않는다!” (1876)

음악사상 가장 특이한 후원자, 폰 메크 부인



차이코프스키 : "1812년 서곡은 열정과 사랑도 없이 쓴 곡이라 별 가치가 없다. 시끄럽고, 예술적 강점이 없다."

폰 메크 부인은 차이코프스키가 실의에 빠질 때마다 격려.
우정은 10년 동안 지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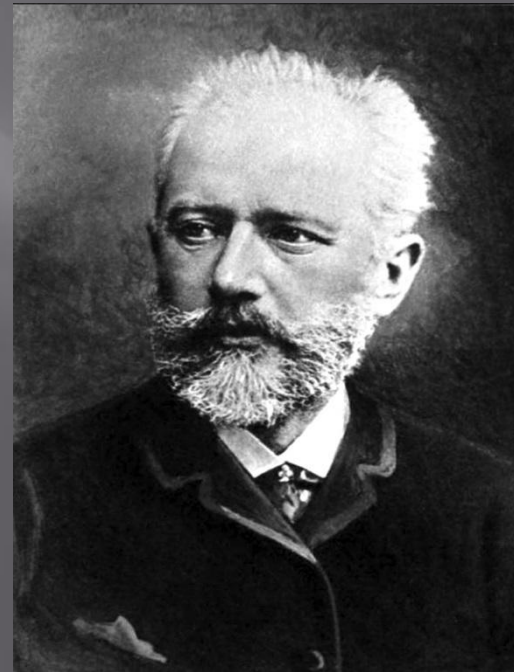


폰 메크 부인 : "아니다. 가장 훌륭한 곡이다."

음악사상 가장 특이한 후원자, 폰 메크 부인



1890년 폰 메크 부인 파산 (?)
후원금과 편지 일방 중단 →
우정도 중단!



“진짜 기분이 나쁘네요. 그가 후하게
기부해 주었을 때 저는 절대 부끄러워
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끄럽습니다.
알고 보니 모두 멍청하고 추잡한
짓이었네요.”

음악사상 가장 특이한 후원자, 폰 메크 부인



폰 메크 부인은 막강한 재력으로 이 천재 음악가를 지배하고 싶었던 걸까? 그녀가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사랑한건 사실일 것. 그의 후원으로 차이코프스키가 편안하게 작곡에 몰두한 것 또한 사실일 것.

좋은 기억보다 상처의 아픔이 더 컸다.
둘 사이에 돈을 매개로 한 권력 관계가
끼어들었고, 그것이 두 사람의 우정을
불가피한 파탄으로 몰고 간 게 아닐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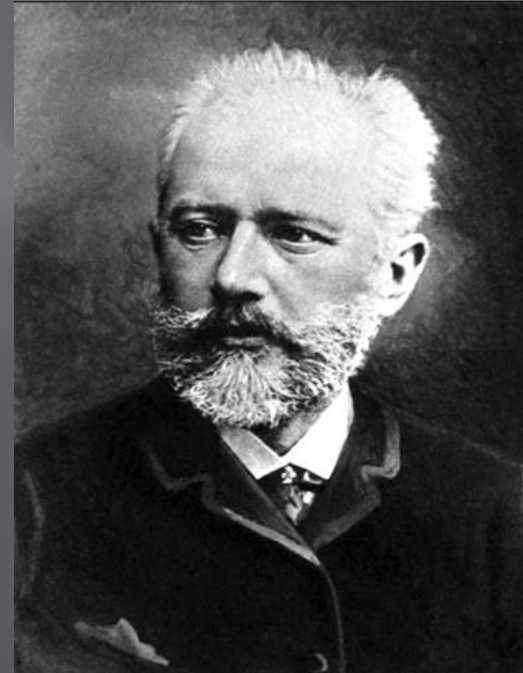


음악사상 가장 특이한 후원자, 폰 메크 부인



동성애자인 차이코프스키에게 폰 메크 부인은 이상적인 여성이었다. 폰 메크 부인은 우정을 일방적으로 선택했지만 자발적 희생인 측면이 있다.

차이코프스키는 죽기 직전까지 폰 메크 부인의 이름을 부르며 분개했다. 그는 너무 자기 중심이 아니었을까? 죽기 9일전 초연한 <비창> 교향곡은 폰 메크 부인의 그림자가 느껴진다.



<차이코프스키> (1969)

이 영화는 차이코프스키가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을 완벽히 외면하고 있다. 그러나 천재 음악가의 삶과 고뇌를 잘 묘사한 훌륭한 음악 영화다. 특히 오페라 <오네긴>, <스페이드 퀸>, 교향곡 6번 <비창> 등 음악 극적인 상황에 맞게 잘 배치.

